

R&D·설비 투자 확대...“2025년 글로벌 톱5 도약”

더블스타 인수 금호타이어 앞날

금호타이어 사태가 극적으로 해결됐다. 노조가 ‘법정관리’ 대신, 중국의 더블스타 자본 유지에 전격 합의하면서다. 더블스타와 채권단이 수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계기가 되면서 회사 경영 정상화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더블스타, 6400억 유상증자=금호타이어 노조가 중국 타이어기업인 더블스타로 매각에 동의하면서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단은 이미 더블스타 투자유치에 대해 100% 동의로 승인한 상태다. 채권단은 2일 경영정상화 계획에 대한 노사 합의서와 해외 매각 동의서가 제출되면 더블스타와 본계약에 나선다.

더블스타는 본계약 뒤 투자 금액의 5% 수준인 계약금 323억원을 내는 후 속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투자조건은 주당 5000원에 모두 6463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더블스타는 3년간 고용을 보장하고 채권단은 시설자금 용도로 최대 2000억원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채권단 채무 만기 5년 연장

사업 영역 달라 시너지 효과

중국사업 정상화 속도 낼 듯

채권단은 또 석달째 월급조차 주지 못하는 금호타이어에 긴급자금을 수혈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은행 등 자율협약 대상 채권단의 채무 1조8000억원에 대한 만기를 5년간 연장하면서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도 세워놓았다.

더블스타는 3년간, 채권단은 5년간 지분 매각이 제한되고, 더블스타는 5년 또는 채권단이 지분 매각을 할 때까지 최대 주주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조건에 포함됐다.

◇“2025년, 글로벌 톱5로”=더블스타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금호타이어를 인수한 뒤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국내 R&D 투자 확대, 시설 업그레이드, 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2025년, 글로벌 톱5 진입’하겠다는 거창한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더블스타는 지난 2016년 매출액 기준

으로 세계 타이어 업계 23위권(점유율 0.7%) 업체지만 14위 금호타이어(1.6%)를 인수할 경우 글로벌 생산 거점 확장, 생산 능력·기술 공유 등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면서 세계 10위권 업체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사업 영역이 크게 겹치지 않아 중복 투자 우려도 많지 않다는 게 자동차업계 시각이다.

금호타이어는 주로 PCR(승용차용 타이어) 부문에, 더블스타는 TBR(트럭·버스용 타이어) 부문에 주력하는 업체다. 가격대와 품질 측면에서도 금호타이어가 중상급(mid-high) 제품에서 경쟁력이 있다면, 더블스타의 경우 중하급(mid-low) 제품이 강하다는 것이다.

중국 현지 업체와 손을 잡는 만큼 금호타이어 중국 사업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블스타는 중국 타이어 판매 5위(2016년 매출 기준 점유율 5.6%) 업체로, 특히 TBR 판매량은 상위 3위에 이르고 중국 내 판매 영업망(약 4500개)을 활용할 수 있는 점은 금호타이어 정상화에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386 민주화 세력 첫 단일화 강기정·민형배·최영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 3명은 1일 총장로우체국 앞에서 ‘시민공동정부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단일화를 선언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금호타이어 노사 합의안 내용

금호타이어 노조가 더블스타로의 매각에 동의하면서 사측과 합의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별합의서’ 내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호타이어 채권금용기관협의회(이하 채권단)는 애초 지난 30일까지 노조에 ▲노사 합의로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할 것과 ▲중국 타이어 기업인 더블스타로의 매각에 동의를 요청했었다.

노사가 합의한 경영정상화 방안은 임

노조 상여금 250% 반납하고 2년간 무분규 선언

금·생산·공장휴무·제도개선·복지 후생 등으로 나뉜다. 임금의 경우 ▲상여 800% 중 2018년 상여금 250% 반납 ▲2019년 이후에는 상여 200% 반납하는 데 합의했다. 상여 반납분은 2020년 이후 영업이익률(본사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환원하며 환원이 완료된 이후 영업이익률에 근거해 격려금을 통해 반납분을 보상해 주기로 했다.

생산 부문의 경우 광주·곡성 공장 인력 운영을 통해 생산성을 4.5% 향상하는데

합의했고 휴무 조항은 최대 20일까지 무급 휴무를 적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복리후생 항목에서는 하기 휴양소 운영 및 설·추석 명절 선물, 생일 선물 등을 중단하기로 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쟁의행위’와 관련, 노조는 ‘합의서 유효기간 동안에는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단체협약의 경우 유효 기간을 2년으로 보

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2년간은 ‘무분규 선언’을 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채권단이 약속했던 우리사주조합 또는 개별 임직원 앞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금호타이어가 자사주를 취득한 뒤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2019년 하반기부터 광주·곡성공장에 대한 단계적 설비투자를 시작하기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윤장현 시장 진정성 있는 중재, ‘금호타이어 파국’ 막았다

윤장현 광주시장의 진정성과 진화력이 ‘금호타이어 사태’의 파국을 막아냈다. 극단의 길을 가던 노조, 회사, 정부, 채권단의 중간에 서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협상의 돌파구를 제시하며 중재 능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지난 30일 광주시장 3층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금호타이어 정상화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시점만 해도 전망은 비관적이었다. 산업은행이 더블스타 자본 유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최후 교섭안으로 제시했으나, 노조가 일언지하에 거절했기 때문이다. 국내기업 인수 추진설이 돌면서 협상은 더 꼬여있었고, 채권단과 정부

의 압박은 계속됐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간담회를 제안해 성사시킨 윤 시장은 “총파업에 들어간 노조가 간담회에 오는지 여부부터 걱정했는데 다행히 조금 늦게 참석해줬다”며 “이번 사태를 완전하게 책임질 수 있는 관계자들로 회의를 하기 위해 청와대, 정부부처와 사전에 조율한 것이 상당한 성과를 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먼저 상대편을 멀리 마주보아야 하는 비즈니스룸에 앉아있던 참석자들을 좁은 자신의 집무실로 이끌었다. 윤 시장은 “무릎을 마주하며 가까에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니 난제가 서서히 풀려가는

느낌을 받았다”며 “1998년 IMF 사태 당시 시민운동가 자격으로 금호타이어 구조조정을 반대하며 노조 본임토의에 2년간 참석한 경험에서 우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 도중 2차례의 위기도 있었다. 상여금 지급 등에서 이견을 보여 분위기가 급변한 것이다. 그는 “순간 당황했지만 세세한 부분은 명문화하지 말자고 제안했는데, 참석자 모두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토로했다. 사태 해결에 꾸준히 노력해온 윤 시장을 참석자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기아차 노조위원장 출신인 박병규 경제부시장의 역할도 컸다.

윤 시장은 “무엇보다 한 가정을 책임지



는 가정의 본분을 잊지 않고 큰 결단 내려주신 노조원 한 분 한 분에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 대화의 참여, 금호

타이어 문제 해결을 위한 광주·전남 시도 민 대책위 활동에 시를 대표해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노·사·민·정 대타협이 일 자리를 지켰고, 인간의 존엄, 가정공동체,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지켜냈다. 이것이 바로 광주정신이며, 노동자가 살고 기업이 사는 광주형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오늘 면접

경쟁 치열한 호남·수도권 ‘원샷 경선’

적합도 평가 지난 31일 마무리

경선은 9일~22일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초 6월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진행하는 등 본선에 나설 후보자를 선출하는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민주당은 수도권 및 호남지역은 경선을 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며, 후보자 간 지지율 차가 크게 나는 지역에 한해 예외적으로 단수공천을 할 예정이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여의도 당사에서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한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 면접은 2일 오후에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면접 심사를 마치면 앞서 진행한 서류심사 결과 등을 더해 단수공천 내지 경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공천심사 기준은 당선 가능성(30%), 도덕성, 업무수행능력, 정책성, 면접(이상 각 15%), 기여도(10%) 등이다. 이 가운데 당선 가능성 항목 평가를 위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는 지난

29일부터 실시해 이미 마쳤다.

민주당은 17개 광역단체장 후보 중 서울·경기·인천과 광주·전남·전북에 대해서는 경선을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지지율 격차 등의 이유로 단수 공천할 경우 탈락한 후보자와 지지자가 반발하면서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도권과 전남·북의 경우 모두 2~3명이 경선에 나선 상황이라 별도의 컷오프 없이 ‘원샷 경선’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의 경우 단일화가 이뤄지더라도 후보가 5명이나 돼 컷오프 후 경선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경선은 오는 9일부터 22일 사이에 권리당원 조사 및 안심번호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과열 양상이 있는 호남과 충청을 먼저 하고 수도권 경선이 가장 나중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애초 광역단체장 후보자가 정해지는 시기에 맞춰 중앙당 지방선거대책본부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었으나 ‘로키’ (low-key) 대응 기조에 따라 가능한 한 늦추기로 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NEW



MEVIUS

수퍼슬림 1mg

담배 판매 가격 공고

판매 개시일 : 2018년 4월 2일

제품명	가격	함량
메비우스 수퍼슬림 1mg (MEVIUS SUPERSLIMS 1mg)	4,500원	타르 1.0mg 니코틴 0.10mg

이 공고는 담배사업법 제 18조 4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 12조 1항, 2항 및 3항에 의거한 담배의 판매가격 공고입니다.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한 달간 보청기 무상 대여”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모든 방문 고객 선물 증정
- 보조금 전용 보청기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64채널
충전형 보청기
호환 출시!

NEW



오티콘 OPN은 **충전형 보청기**로 업그레이드하여 사용 가능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동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